

2023 경기예술교육 매칭플랫폼 <노는예술, 더하기> 공모 심의총평

<노는예술, 더하기> 공모는 문화예술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보다 높이고 예술교육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2 노는예술 사업의 피날레이자, 수요기관과 예술교육단체에게는 2023 예술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공모의 심의는 수요기관의 적합성과 사업이해도,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과 구체성, 사업 운영의 역량 등을 심의지표로 삼아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 확약서 제출과 같은 예산확보의 안정성, 수요기관과 예술단체의 상호 조율 과정 등을 함께 검토하여 총 14개 수요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는예술, 더하기> 공모는 기존 예술교육 공모 심의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 예술교육단체가 여러 기관과 매칭되는 것을 지원, 선정된 것입니다. 우선 노는예술은 아트마켓이나 영화피칭과 같이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시장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서 그 가능성과 기능을 실험하는 사업인 만큼, 본 심의에서만만큼은 예술교육단체들에게 1/n로 단순 배분하는 지원 방식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 선정된 10개 예술교육단체 모두 우수하지만, 매칭을 원하는 수요기관 수와 운영예산 등은 차이가 있었고 이 같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에 가장 걸맞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영화 피칭에서 한 영화에 투자, 배급 수요가 몰리는 것은 수요처의 의지와 요구이므로, 이를 공평성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영화에게 분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추가 사족을 달아봅니다.)

다음으로 본 공모 심의에서는 타 공모와는 달리 지원한 수요기관들이 탈락할 요인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10개의 예술교육단체는 지난 가을 10: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바 있으며, 본 공모에 지원할 때 수요기관과 예술교육단체가 상호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쳤기에 공모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락할만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계획도 있었지만, 선정 후 준비와 실행과정에서 상호 논의를 통해 개선해갈 가능성이 충분했기에 공모에 지원한 14개 기관 모두를 선정하는 것으로 심의위원 전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본 공모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있어 수요기관의 신청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수요기관의 예산을 더 많이 삭감하였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술교육과 연계성이 드러나지 않는 공연, 영상 촬영, 단순 제작비 편성은 지양하기를 바라고, 지역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 많은 기수와 강사 수 편성 등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노는예술, 더하기> 공모에서는 2022년 12월 진행된 ‘노는예술 피칭데이’에 직접 참가하고 예술교육단체들과 현장에서 만났던 수요기관들이 공모지원 수의 약 절반에 달한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단순 지원이 아닌 의미를 이해하고 과정을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 보건소, 시청, 지역기업, 보육 기관 등 평소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에서 만날 수 없었던 수요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한 것도 의미 있습니다. 창의적 예술교육을 요구하는 곳이 우리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고 많다는 것을 보여준 시작이라 여겨집니다.

본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문화재단에 바라는 바는, 문화재단의 모든 공모와 예술교육이 시장화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노는예술>의 실험과 도전은 긍정적인 확인을 응답받고 있기에 과정에서의 고민을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노는예술> 사업뿐만 아니라 본 공모 심의에서 있었던 특수한 사안들을 정리하여 본 사업에 보다 적합한 공모, 심의체계를 만들고, 선정된 수요기관과 예술교육단체에 대해 컨설팅 등 한 해 간 도움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기관에게는 왜 각 예술단체를 선정하였는지 의견을 수집해보고,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한 10개 예술교육단체가 이번 공모 결과를 놓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다양한 정보와 아카이빙 기록 등을 외부와 공유하여 <노는예술>의 의미와 과정을 다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정된 수요기관 모두 축하드리고, 매칭 예산이 아닌 기관 자체 예산만으로 2023년 예술교육을 하게 된 단체들에게도 축하를 전합니다. 아쉽지만 매칭 지원 수요가 없었던 예술교육단체들은 이번 공모만으로 단체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며, <노는예술>을 통해 예술교육의 공공서비스 시장에 대한 도전과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에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3. 1. 20.

심의위원장 김태희
심의위원 김영경, 박이창식